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 조원휘 의원



“가칭)지족터널 도로개설이 필요합니다.”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파크골프장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신설이 필요합니다.”

“안산·대동지역 산업단지의 조속 추진이 필요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괄질문 · 일괄답변)입니다.



## 조 원 회 의 원

### ◎ 조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의 발전방안과 대전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칭 지족터널 도로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은3지구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로 도심지로 연결되는 북유성대로와 한밭대로를 타기 위해서는 노은1·2지구를 통과해야 하는데 문제는 출·퇴근 시간대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근에 대전국립현충원이 위치하고 있어 현충일에는 전국에서 방문하는 차량들로 인해 매년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해야 할 만큼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노은3지구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주민의 안전이나 복지 및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119소방센터와 경찰지구대가 노은1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주민의견들이 빗발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구의회의에서도 지족터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번의 5분 자유발언과 개설촉구 성명서 발표를 통해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지족터널 개통 관련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족터널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단지 경제성만의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개설사업은 단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의 편의성을 높이는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지역에는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및 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에 따른 승용차로의 축소는 교통정체의 주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족터널 도로개설사업은 노은3지구와 노은1지구를 연결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비상상황에 대비한 골든타임 확보, 주민민원 해소 및 교통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결 등 다양한 유·무형의 이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대전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로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말인 불위호성(弗爲胡成)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는 시장님의 새해 각오가 떠오릅니다.

합리적이고 과감한 정책 결정 후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처럼 지족터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도 불위호성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족터널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파크골프장의 필요성과 시설의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파크골프인은 10만 5천 명에 달하고 전국에 300여 개가 넘는 파크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전시는 자치구별로 서구 1곳, 유성구 1곳, 중구 1곳, 대덕구 1곳으로 총 4곳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동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 파크골프장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시는 최근 4년 동안 추가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고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입니다.

대전광역시 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우수한 지리적 조건과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접근성이 좋은 대전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어떻겠냐고 여러 차례 전국협회에서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엔 공인 구장이 하나도 없어 몇 년째 전국대회 유치를 거절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다음 해로 미루고 있다는데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공인 구장이 없어 대회 하나 치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 규모는 9홀 코스 기준 8,250㎡ 이상의 면적으로, 도보로 5분 거리의 동일지역 내에 36홀 이상이어야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차장, 클럽하우스, 남녀화장실, 음수대, 휴식용 그늘막, 대기의자, 컴프레서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전에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회에서 인증한 36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구 유등천 한샘대교 인근에 18홀 경기장 조성부지가 확보되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이지만 나머지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는 부지확보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대전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유허부지를 찾는 일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례회에서 금고동 제1위생매립장 일원에 전국 최대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대전을 파크골프 허브도시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유성구 금고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중 제1위생매립장이 2025년도 사용 종료를 앞두고 활용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을 수목원과 생태공원과 같은 휴식공간을 조성한 활용사례가 있습니다.

하천변이나 공원과 같은 유허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이 파크골프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고동 제1위생매립장 일원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과 공원 조성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침체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축산부류 신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뜨거웠던 2002년 한일월드컵 1년 전 대전월드컵경기장에 인접하여 개장한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중부권 제일의 농수산물 유통 중심지가 될 것 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리적 위치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1분 거리에 유성IC가 위치해 있고 북으로는 세종시와 공주시가 인접해있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었지만 다양하고 질 좋은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축산부류가 없어 대형시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은시장 내에도 축산물 판매시설이 있긴 합니다만 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일 유통업체 1곳이 들어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정도매시장이 인근 도축장을 중심으로 축산물 판매장들이 집중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노은도매시장은 축산물 품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 등에서도 오정도매시장에 밀려 유성과 노은동 인근 소비자들마저 오정도매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세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노은도매시장은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2001년 노은도매시장 개장 당시 대전시도 노은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판매기능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노은시장 내 축협직판장을 유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해석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에 이르러 축산물 판매장 시설 설치와 취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축산물 판매장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노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은시장 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속한 축산부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대동 첨단산업단지를 대전시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극복해 나가야 할 난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앞으로 대전으로 이전할 방위사업청이 함께 시너지를 이루어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전국 제일의 첨단국방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추진되었던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자 변경 등의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가 하였으나 2021년 8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약에서 공공성 강화 및 녹지비율 추가확보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답보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올 상반기를 목표로 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 까다로운 보완사항 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님의 강력한 행정적·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또 구체적인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지만 본 의원은 대동 첨단산업단지에 특히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동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 내뿐만 아니라 지역 외적으로도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향후 대전의 과학기반산업의 요충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적으로는 과학벨트의 거점이 될 신동·둔곡지구가 중이온가속기 건설과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등으로 기초과학 및 글로벌 정주환경 기능을 가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될 계획이고,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이 대덕특구 R&D 성과 사업화의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원촌동 하수처리장이 금고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동 첨단산업단지가 융복합 신기술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이 된다면 대전시는 진정한 과학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역 외적으로도 대동 첨단산업단지는 세종시와 인접해있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유리해서 향후 대외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신동·둔곡 중이온가속기 및 외국인투자지역, 대동 첨단산업단지,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지역, 원촌동 산업단지까지를 잇는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U자형 첨단산업단지 벨트가 형성되어 서울, 수도권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산업도시로 가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과학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대전시민의 풍요로운 미래도 담보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부터 그린벨트 해제 등의 난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한 시기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가능하다고 여기신다면 구체적인 대책을, 어렵다고 여기신다면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의 정책 추진에 있어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조원회 부의장님께서는 지족터널 건설에 대한 저의 입장 그리고 향후대책 그리고 파크골프장 신설 및 조성 확대 관련 문제 그리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신설 관련 또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대동지역 산업단지 추진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지족터널 건설에 대한 저의 입장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몇 차례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제가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노은3지구하고 노은1지구를 연결하는 터널은 반드시 뚫어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죽동2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이나 산업용지 전체 개발과 관련해서도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노은지구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2022년 9월 도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해당 노선을 신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가 현재로는 한 50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제성에서 약간 못 미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경제성을 떠나 전체 시민의 교통수요권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이 최근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 재정적인 여건이 지방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에 대한 신속한 투입은 사실상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금년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타당성검토 용역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3월 정도까지는 타당성검토 용역에 들어가서 일부 약간 경제성이 못 미치더라도 우리 노은3지구 시민들과 노은1지구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지족터널 건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전국대회 개최 가능 공인구장 신속히 조성하라는 말씀,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파크골프장뿐만 아니고 대전시 전체에 대한 생활체육 인프라가 타 도시에 비해서 현격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플랜을 짜는 와중인데 체육시설 하는 것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5개 자치구에 독려하고 있고 가능한 토지 전수조사를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민선 8기 시정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파크골프장 전국대회 개최하는 것도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8홀 규모인 갑천1구장 옆에 인근 유희부지를 활용해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에 없는데 사실 이게 하천 주변의 유희부지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동구 지역의 대전천 주변의 하상 폭이 좁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동안 파크골프장이 인기가 더 있기 전에는 관심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에 관심도 갖고 동호인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구도 동구청장하고 부지에 대한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금고동 활용 전국 최대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2025년도에 금고동 생활폐기물 매립이 완료되면 여기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도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국에서 가장 크고 또 많은 홀을 갖춘 파크골프장을 우선적으로 넣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내후년쯤 매립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우선 매립이 완료된 시점부터 바로 착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뿐만 아니고 정규 골프장도 대전에 유성CC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전시민들의 스포츠권 확보를 위해서 가능하면 정규홀 골프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결과가 나오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 주신 노은시장 축산부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명절 때 노은농수산물시장 가서 평상시 생각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오정농수산물시장, 노은도매시장이 대전을 넘어서 중부권, 일부 호남, 경상도권까지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관련 부서에 근본적으로 축산물 점포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정도로 끝낼 게 아니라 완전히 리빌딩하고 근본적인 종합플랜을 다시 세워서 노은시장은 전면 개편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용역비를 확보해서 노은시장 전체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대적인 준비작업을 해서 용역 결과 전문가들의 판단이 서면 전체적인 시설 전면 개보수를 포함해서 노은시장이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설 현대화를 넘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구조적인 건물배치 문제 또 노후의 문제, 좀 전에 말씀하시는 축산물 경쟁력 확보해서 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가는 것이 장기적인 노은시장의 도매기능을 확충하고 또 대전을 넘어서 중부권 전체 도매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안에 현재 입주해 있는 중도매인들이나 중앙청과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축산기업중앙회나 일부 식육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일부 충돌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노은시장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새로 짜는 것이 저는 지금 시대에 맞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땀질식의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더 확대된 노은시장으로 가기 위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로의 입장이 상충하는 축산점포 입점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축산판매업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최우선 입점 우선권을 주면서 하면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 처방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용역비를 계상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제대로 듣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산업단지 조속한 추진과 조성을 위한 저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사실 마음이 급한 건 쯤입니다.

500만 평 산업용지 구축을 해야 되겠다고 선언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안산 산단, 평촌 산단, 대동 그리고 탑립 전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한 건 평촌 산단은 곧 준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안산 첨단국방 산업단지는 사실 최우선적으로 급합니다.

왜냐하면 국방클러스터 관련해서 국방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안산 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그동안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차례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현재 중앙부처 간 협의를 사실상 완료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4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장관한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다시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사실상 100만 제곱미터 내외의 그린벨트 해제를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이양하면서 중앙토지계획위원회 심의나 사전 이런 걸 하는 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금년 6월이 넘으면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인정했던 산업은행이나 이런 공제조합 같은 데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법규로.

그래서 금년 6월 안에 판단이 서서 다행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심의를 통과하면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가야 되고요, 만약에 심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 대안으로 도시공사가 직접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게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여러 주민들 걱정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까지 잘 수렴해서 좋은 산단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 산업단지 목표 할 수 있냐고 여쭙보셨는데, 먼저 2027년까지 사업준공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성 대동지역 대덕연구개발특구 4지구의 특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한 8천억 들고 사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한 50만 평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2027년 준공목표로 계획해서 LH가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2020년도 전임 시장님 때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해서 미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사실상 착수를 못 했는데, 그래서 LH가 포기를 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추진을 협의했습니다만 사실 원촌지구나 여기에 결합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원촌지구는 우리가 아파트 짓는 사업은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우리가 좀 더 가다듬어야 되겠지만 바이오헬스케어 전략사업 핵심 땅이기 때문에 지역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요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이걸 결합해서 사업을 원하는데 이걸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 도시공사가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공공지원금 한 2천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도시공사하고 관련 부서가 검토해서 부의장님 지역구인데 잘 상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장 취임하고 첫 지시가 대전시가 앞으로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고 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500만 평이 가능한지 토지 전수조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 토지 전수조사를 끝낸 즈음에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산단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170만 평 가까이 국가산단 신청을 했고 국토부하고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 협의가 잘됐고 그리고 절대농지에 대한 농림부하고 협의가 잘돼서 지금 현재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는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그리고 그 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팜 시설까지 넣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